

삼성암센터 개원을 바라보며- “호스피스 완화치료에도 깊은 관심을”

새해 벽두부터 병원계에 암 진료 경쟁이 뜨겁다.

삼성서울병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지난 1월 2일 삼성암센터를 띄우고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이를 신호탄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대형병원들도 앞다퉈 가세할 태세다. 올해나 내년 중으로 별도의 암센터를 개설하려고 계획 중이거나 이미 준비를 마친 곳이 수도룩하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이 지상 4층, 지하 6층의 암센터 건물을 착공하고 외래진료 위주의 암 진료에 나선다는 방침이고, 서울아산병원이 내년 2월까지 대형 암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확정했다는 후문이다. 또 세브란스병원이 3월 중으로 300병상 규모의 암센터를 착공하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고려대의료원도 내년에 암센터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일까. 암 분야를 특화해 명성을 쌓은 국립암센터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형병원들이 암 치료의 주도권을 놓고 가히 ‘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글·서한기
연합뉴스

일단은 반가운 일이다. 진단에서 수술, 회복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진료를 내세운 ‘페이션트 프렌들리(Patient Friendly)’ 암센터가 잇따라 문을 연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특히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암환자의 처지에서는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일이라 할 만하다 하겠다.

더욱이 암센터마다 최첨단 의료시설로 중무장해 암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선사하겠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암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때로 지친 암환자로서는 여간 위안이 되는 게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환영의 노래만 넘쳐흐르는 것은 아니다.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무엇보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병원들간의 과당 경쟁이 과잉 진료로 이어져 암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급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이를 단순히 기우(杞憂)로 치부할 일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암센터를 세우는데 건물 공사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등을 합쳐 무려 3천50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다른 의료기관은 웬만해서는 엄두도 못 낼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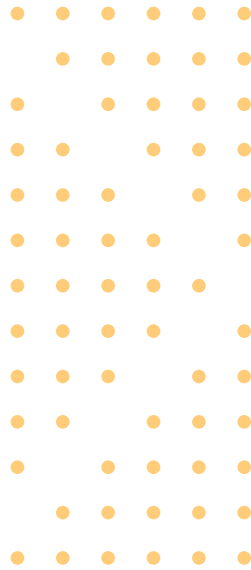
삼성서울병원이 이처럼 암센터에 정성을 쏟으면서 공격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국내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동아시아의 ‘암 치료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열정의 발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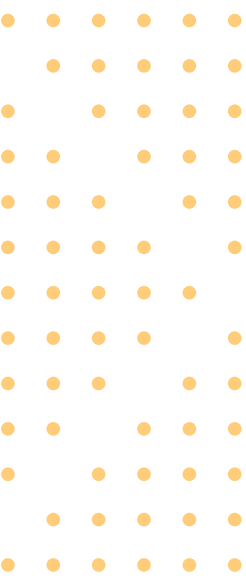
좋다. 암 치료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겠다는데 누가 박수를 치지 않겠는가.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치료 가능성이 있는 암 환자는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할 것이지만,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를 도약의 디딤돌로 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형병원들이 암 진료시설 등 하드웨어 증설에만 지나치게 몰입할 뿐, 암환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국립암센터 운영호 암관리사업부장과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팀이 국내 17개 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한 3천7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망 전 1년간의 의료비용과 의료이용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연구결과는 암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임종(臨終)이 가까운 시점에까지 불필요한 항암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이 허다





했다. 심지어 사망 한 달 전에도 국내 암환자 10명 중 3명꼴인 30.9%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치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기 상황에서도 암환자들은 의료진의 손에 이끌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고통 속에서 허비했다는 말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암환자의 간절한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2006년 9월 한 달 간 전국 의료기관 63곳에서 입원치료나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7천224명 중에서 통증이 있는 환자 3천245명을 가려내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암환자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속마음을 알 수 있다.

무려 84.5%가 '완치 여부를 떠나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60.8%는 '수명이 연장되는 것보다는 통증이 덜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 만큼 암환자들의 통증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또 84.9%는 의료진이 자신의 통증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했고, 68.5%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통증을 자세히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의 MD앤더슨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암치료센터를 벤치마킹했다는 삼성암센터에는 VIP를 위한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는 있지만, 암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의료'를 제공할 공간은 없다.

아시아 최대라는 652병상을 갖춘 삼성암센터에 호스피스 병동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말기 암환자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시설이 삼성암센터에 들어서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KHA**